

공동체 소식

전교 주일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10월 기도지향

- 김정환(요한), 김윤아(글라라) 가정
유길수(크리스토퍼), 유경애(아녜스) 가정

묵주기도 성월(전교의 달)

전 세계 교회는 해마다 시월을 '묵주 기도 성월'로 지냅니다. 묵주 기도를 자주 바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을 더욱 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목 방문

11/24(일) 중심미사에, 캔사스 대교구 Joseph F. Naumann 대주교님께서 저희 한인 공동체를 사목방문 하십니다.

사목 방문을 위한 '9일 기도'는 11/15(금)부터 가정 별로 봉헌하겠습니다.

평협 회의

- 일시 : 10/20(일) 오후 1시
장소 : 회관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10/26(토) 오후 5:30
장소 : 성 로렌스 성당

구역 회의

- 일시 : 10/27(일) 오후 1시
장소 : 회관

이번 구역모임부터 <신앙생활보감> 유인물을 나누어 드립니다.

기타

-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봉헌합니다.
그동안 저희 캔사스 공동체와 함께 하셨던 김창만(그레고리오), 이대숙(사비나) 가정이 다른 주로 전출을 가십니다. 공동체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크신 은총을 빌어 드립니다.

전례 성가

Table with 4 columns: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Values: 61, 215, 165/161, 63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항목, 향 복사, 시종 복사. Rows for 금주 and 차주.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Rows for 금주 and 차주.

애찬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금주, 차주. Names of altar servers.

헌금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금주, 차주. Names of offertory readers.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Table with 4 columns: 참여인원, 헌금, 교무금. Values for 10/13.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재 무 차호섭 요셉

오늘의 전례



오늘은 전교 주일로서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바오로 6세 교황에 따르면, 복음화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인류를 내부에서부터 변혁시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화해설

갈릴래아 산에 나타나심 (두초오, 1308-1311년, 나무에 템페라, 두오모 오페라박물관 소장)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19-20)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지영현 시은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이사 2,1-5 <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으로 밀려들리라. >



만 백 성 이 당 신 의 구 원 을 알 게 하 소 서

- 하느님 저희를 어여뻐 여기소서. 저희에게 복을 내리옵소서. 어지신 그 얼굴을 저희에게 돌이키소서.
정의로 못 백성을 다스리심을 이 세상 못 백성을 다스리심을 창생들이 기뻐하여라.
오곡 백과가 땅에서 났으니 우리 주 하느님이 복을 주심이라. 하느님 저희에게 복을 주소서. 천하 만방이 당신을 두리게 하소서.

제 2 독서 : 로마 10,9-18 <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 음 : 마태 28,16-20 <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

세 마

“친구야, 함께 놀자!”



어린 시절의 추억들 가운데에는 간혹 잘 보존된 사진처럼 생생하게 기억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복사단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정말 성당 다니는 것이 신이 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큼 ‘선교의 열정’(?)이 강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친구들을 종종 성당에 데리고 가곤 했는데, 이럴 때면 시합 때의 김연아 선수처럼, 성당 마당에 있는 성모상 앞에서 보란 듯이 성호를 긋고 오른 무릎을 꿇는 등 과장된 행동도 하곤 하였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성당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곳인지를 알리고 싶었고, 또 성당에서 함께 놀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선포 50주년을 맞이하여 ‘신앙의 해’를 선포하면서, 공의회의 근본취지를 기억하며 신앙의 참된 의미를 재확인하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자고 권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해’의 막바지에 맞이하는 전교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전교주일을 맞이하여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지기관이나 NGO(비정부민간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납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이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교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가 신앙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내면의 기쁨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행위입니다.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가톨릭교회교리서」 850항)라는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에 앞서 당신 복음선포의 출발지인 갈릴래아로 제자들을 부르시어 당부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는 말씀은 왠지 딱딱한 교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신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사랑의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라는 당부입니다.

‘성당에 다니는 것’은 단순히 삶의 지혜나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모시고 하나의 커다란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가족 안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자매들은 더욱 특별한 배려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야, 함께 놀자!’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 서울대교구 김영국 요셉 신부 -



마중물

“묵주기도란?”

기도의 경우도 사랑의 경우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넘쳐나고 얼마간은 의견이 오갑니다. 그런 뒤 침묵이 시작되고 한두 마디로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몸짓과 시선으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소용없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므로 말이 너무 많으면 묵상이 힘겹고 거의 불가능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기도가 단순해지면, 그때는 비록 이따금 매우 힘겨운 무미건조함이 따라오긴 하지만, 영혼이 사랑 넘치는 단순한 시선으로 하느님과 담소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소위 호칭 기도, 즉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등과 같은 몇 마디 안 되지만 내용은 풍부하기 이를 데 없는 표현들을 무한히 반복하는 그런 기도가 한창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묵주기도는 아주 드높은 영감으로 가득 찬 기도로서 널리 생활화되고 사랑받는 기도입니다.

나는 유럽 생활을 할 때 묵주기도 찬반에 관한 열띤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자주 가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아주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묵주기에 대해 토론하는 사람들이 아직 그 기도의 혼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사막에서였습니다.

묵주기도는 거의 성령에 대한 관상기도의 수준에 맞먹는 그런 유형의 기도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하든 안 하든, 분심에 빠지든 안 빠지든, 그 기도를 깊이 사랑하여 그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하루 해를 보낼 수 없을 정도라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주기도는 ‘하느님’이라는 강독을 쳐대는 물결의 메아리-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와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어린 시절 요람을 쓰다듬는 성모님의 손길과 같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의 보잘 것 없음과 가난을 결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기도에 온갖 힘겨운 인간적 사고를 내맡김을 드러내는 표징과 같습니다. 묵주기도는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아닙니다.

- 까를로 까레토, <보이지 않는 춤> -

